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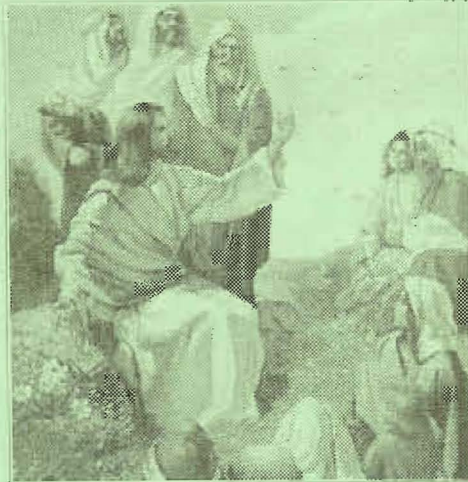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요셉 성월 · 연중 제8주일
제34권 14호(가해) 2014.3.2

[묵상]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도
결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Fighting!

걱정하는 것의 40%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고,
30%는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이미 지나가 버려 손을 쓸 수 없고,
12%는 남에 관한 걱정으로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고,
10%는 상상으로 그려본 질병에 대한 염려이고,
나머지 8%만이 진짜 걱정할 문제라고 한다.
이 8% 역시 그 절반인 4%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므로
4%만이 그나마 그럴듯한 걱정거리였고,
96%는 안 해도 될 염려로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다.

어떤 사람이 한 성자에게
"당신은 가진 것이라곤 없는데
근심걱정도 없이 어찌 그렇게도 밝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성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지나간 일에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당장의 일에만 전념하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려 슬퍼합니다."

103위 한인성당 신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택시오 디비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3: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구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올바른 성모신심

제4장 잘못된 성모 공경

(2) 가톨릭 교회 안에서 빛나간 성모 신심들

나. 나주의 기적이나 사적 계시를 성역화하는 성모 신심

(이는 1985년부터 나주의 윤 올리아가 중심으로 일어난 신심 운동에 관한 내용이며, 그들이 발표하고 선전한 여러 자료를 참조하였다.)

특히 『가톨릭 다이제스트』 1998년 2월 호, 1999년 2월 호에서는 “나주 문제를 생각해 본다”, “교회가 외면한 성모님의 호소”라는 특집 기사들이 교구장의 결정을 비난한 바 있다. 대주교교구는 2003년 5월 21일자로 교구 신부들과 수도회 장상에게 ‘나주 성모상’과 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며, 윤 대주교, 최 대주교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2005년 5월 5일 최창무 대주교는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위하여 교구장 공지문을 발표하였다. 직접 찾아가 세 번이나 면담한 사실과 금전 출납 현황,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등기 사항, 회계 업무에 대한 투명한 자료 제출 등을 교구가 직접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지만 여전히 순명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최 대주교는 다시 한 번 순명을 권고하며 다음과 같은 공지문을 발표하였다.

1. 누구든지 교회의 공식 검증과 인준을 받지 않은 일을 ‘사적 계시’라든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선전하며 광고하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와 무관한 일이며 교회를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다.
2. 교회의 공식 인준이 없는 나주의 ‘성모 동산’이나 올리아의 집이나 ‘경당’에서 교회 이름으로 집회를 주선하거나 의식을 행하는 것은 건전한 신심 행위도, 합당한 전례 행위도 될 수 없다.
3. 1998년 1월 1일, 2001년 5월 5일 발표된 광주대교구 교구장의 공지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지역 교회 공동체의 합법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교도권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4. 나주 올리아가 주장하는 소위 ‘사적 계시’나 ‘기적’을 홍보하거나 숨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순례’하려는 행위는 교회의 순명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건전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다.
5.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그가 어느 교구, 어느 나라에 속하더라도 교회의 공식 신분을 지녔으므로 본 광주대교구 주교의 분명한 허락 없이 ‘성모 동산’이나 나주 윤 올리아가 마련한 ‘경당’에 참배한다거나 그곳에서 종교 의식, 전례 행위를 하는 것은 보편교회와 지역 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나주의 사적 계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마리아께서 발현하셨는지를 묻는 일이다. 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다. 그러나 메시지가 계시 진리나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면 올바른 발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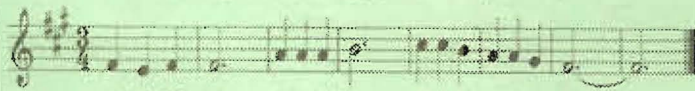
◀계속▶

토 요 특전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오창섭, 박용석 요셉 & 오필환 마리아, 민공임 (생)김지수 보나 & 김지혜 크리스티나, 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브렌트 안토니오, 한길선베 스킨라스티카 & 장주환 마리아, 고 조나탄 & 박세준 요셉 & 조병준 플로렌시오
주 일 낮 미사	(연)김시형 시릴로, 김성일 바오로, 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현호 요한, 한민교 세례자요한, 고준희 제임스, 김종환 야고보, 전시웅 요한, 이용식 베드로, 차정진 마리아, 서정록, 백덕돌, 연옥영혼들 (생)김민석 시몬 & 김지혜 수산나, 서명관 안토니오 가정, 김병태 요셉 & 김정희 마리아 가정, 이형삼 요셉 & 이혜숙 요세피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49,14-15

화답송 ○내 영혼아, 하느님을 고요히 기다려라.



내 영혼아, 하느님을 고요히 기다려라.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구원이 오리니,
내 영혼 그분을 고요히 기다리네.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희망이 오리니,
내 영혼아. 그분을 고요히 기다려라.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구원, 내 영광, 하느님께 있고,
내 든든한 바위, 내 피신처 하느님 안에 있네.
백성아,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4,1-5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복 음 마태오(Matthew) 6,24-34

영성제송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401	216	208
봉헌	361	265	270
성체	Heart of Worship	292	309
파견	391	246	103

필요(Need)와 욕심(Greed)

우리 성당 근처에 소위 '로또 명당'이라 소문난 판매소가 있습니다. 1등 당첨이 무려 20번이나 되었답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에서 소문을 듣고 로또를 사러 오기도 하고, 우편으로 부쳐 주기도 한답니다. 저도 한두 번해보았습니다. 당첨되면 성전건립기금으로 내겠다는 허풍을 떨면서 말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행성 산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한방에 대박을 터뜨리고 싶은 심리가 살기 어려울 때일수록 강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애초부터 조작해 놓은 기계를 상대로 한방 터뜨려 보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허황된 꿈인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도, 사람들은 오늘도 로또 가게 앞에 긴 줄을 서고, 도박판을 전전하며 더 깊이 빠져들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태 6,24 참조)

오늘 복음말씀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생각해 봅니다. 돈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이나 돈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일 뿐이라며, 조소거리로 취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한술 더 떠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마태 6,33-34)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해진 마이클 샌델 교수 후속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책에서, 아무리 시장 지상주의 시대라 하더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과 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음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에 앞서 ‘과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선행될 때, 비로소 우정이나 인격, 도덕적 가치, 친밀감 등 인간관계에 있어 소중한 가치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먹고사는 일을 가볍게 여기사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잘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시며 재물을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대하라고 경고하십니다. 필요(NEED)한 만큼이 아니라, 탐나는 만큼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심(GREED)을 강하게 질타하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상 ‘필요’와 ‘욕심’은 글자 한 자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이고 어리석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즐기면서, 한편으로 기쁨과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맹목적으로 추구하면 그것은 점점 우상이 됩니다. 이는 곧 사람을 살리기보다 죽이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총의 사순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원석 신부 / 서울대교구 노원성당 주임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금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금식·금육 : 재의 수요일(3월5일), 성 금요일(4월18일)

▶금식 대상 : 만 18세~60세(한 가 금식)

▶금육 : 매주 금요일(금육 대상 : 만 14세부터)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체스카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신덕례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곽수민 히데리오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순시기 †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3월5일)부터 시작되어 성 목요일의 주님만찬 미사전까지이며, 예수부활 대축일(4월 20일)을 준비하는 회개와 기도의 시기입니다.

◆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미사

- 오전 9시, 오후 7시30분 :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미사와 재의 예식에 참석합니다.(금육과 단식)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7:30)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저녁미사(오후 7시30분)으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가 참여해서 ‘십자가의 길’기도를 바칩니다. 진행은 계단체가 말합니다.

- 재의예식 다음 금요일(3월7일) : 본당 신부님
- 사순 제1주간 금요일(3월14일) : 꾸리아
- 사순 제2주간 금요일(3월21일) : 소공동체
- 사순 제3주간 금요일(3월28일) : 요셉회
- 사순 제4주간 금요일(4월4일) : 양업회
- 사순 제5주간 금요일(4월11일) : 대건회
- 성 금요일(4월18일 오후 3시) : 본당 신부님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가 재의 수요일부터 준비됩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국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공봉투는 주님만찬 성목요일(4월17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북미주 한인사목사제협의회 후원을 위한 2차헌금

북미주 한인사목사제협의회(KAPA)와 남미·아프리카 등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후원을 위한 2차헌금이 오늘 3월 첫째 주일(특전미사포함)에 있겠습니다. 이 헌금은 매월있는 월례 2차헌금을 대신하오니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3월9일(주일)부터 서머타임 시작

9일(주일) 새벽 2시를 3시로 옮겨놓으십시오. 평소보다 1시간 빨리 일어나야하는 셈입니다. (미사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 한국학교 지원 양업회 친교음식 판매

- 일시 : 오늘주일 토요일특전, 낮미사후 친교장

- 메뉴 : 족발, 반대떡, 도토리묵 등 맛있는 홈메이드 반찬류와 양업회가 직접 제조한 막걸리
- 낮미사후 친교점심 : 콩나물국밥을 무료로 대접합니다.
- 판매수익금 전액 : 한국학교 도네이션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양업회장 ☎(213)505-2941

◆ 사순 특강 I, II

- **특강 I** 강사 : 심원택 토마 신부님(부산교구)
- 주제 :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 일시 : 3월16일(주일) 오후 1시, 성전
- **특강 II** 강사 : 이동진 바오로 신부님(오순절 평화의 마을)
- 주제 : 꿈, Dream, Cum
- 일시 : 3월19일 저녁미사후, 성전 (22,23일 주일장톤)

◆ 예비자 교리반 모집 안내

을 성탄절 세례를 준비하는 새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 모집 및 전교기간 : 3월1일~4월30일
- 환영식 : 4월27일(주일) 낮미사후 강당
- 교리시간 : 5월1일~12월18일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분~9시10분, 2층 교리실
- 세례식 : 12월21일(주일)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백삼위 탁구동호회에 초대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백삼위 탁구동호회(백구회)에서 교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권유합니다.

- 연습 및 강습시간 : 첫째, 셋째주일 오후 1시 유아실
둘째, 넷째주일 오후 3시 강당
- 친교점심후 바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310)926-2248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3월2일(주일) : 양업회(콩나물국밥 \$0)
* 주일학교(11,12학년 김밥)
- 3월9일(주일) : 토런스 동2반(소고기무국 \$3)
* 주일학교(1,2학년 칠리도그 & 나초)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강태홍	김관기	김병조	김성택	김성현	김 욱
	김윤진	김재영	김철민	나경훈	노찬술	박완철	박종열
	반비오	서성용	안민수	안종연	오세원	오영섭	윤석구
	윤화경	이근태	이민상	이병우	이상곤	이현주	이형삼
	임한나	장수영	장수창	장영진	정병훈	정혜영	최재영
	최희태	한창주	홍석인	송마이클			
	합계 : \$4,265						
주일미사 헌금 : \$2,816							
성전헌금	강인모	강태홍	김관기	김병조	김 욱	김철민	나경훈
	박완철	반비오	서성용	안민수	안종연	오세원	오영섭
	윤화경	이근태	이민상	이병우	이상곤	이현주	이형삼
	임한나	정혜영	최재영	한창주	홍석인	송마이클	
	계대회(\$1,184.50)						
	합계 : \$4,899.50						
감사헌금 : 익명(\$1,000)	한남체인도네이션 : \$350						

◆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 (야외14처) 스케줄

- 3월9일 : 3,4학년 ● 3월16일 : 중등부
- 3월23일 : 고등부 ● 3월30일 : 5,6학년
- 4월6일 : 유치부, 1, 2 학년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제목 : 루카복음(영어), 노트 제공
- 대상 : 3학년~12학년
- 필사마감 : 4월13일까지 담당 교리교사에게 제출
-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4월20일)

◆ 중등부 사순 피정

- 일시 : 3월21일(금)~23일(주일)
- 장소 :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39364 Oak Glen Rd. Yucaipa, CA 92399 웹사이트 : www.oakglen.org)
- 대상 : 7학년~8학년
- 참가비 : \$60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 남스텔라 중등부 교무주임 ☎(310)918-3324

◆ 고등부 사순 피정

- 일시 : 3월28일(금)~30일(주일)
- 장소 :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39364 Oak Glen Rd. Yucaipa, CA 92399 웹사이트 : www.oakglen.org)
- 대상 : 9학년~12학년
- 참가비 : \$60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고등부 교무주임 ☎(310)709-3343

◆ 한국학교 SAT반 학생모집중

- 대상 : 현재 8학년이상/11월1일 시험을 볼 예정인 학생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 교장 ☎(310)464-7490

"새 신자 환영합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동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주십시오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하늘에 떠다니는 흰구름의 평화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이해인 수녀 '가난한 새의 기도'중>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광자 엘리사벳 988-9925 3/15(주일)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신중철 아브라함 936-9202 3/8(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3/14(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이우성 요셉 793-0915 3/15(토) 오후 6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박상원 야고보 999-5808 3/15(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정정현 베네딕타 995-6342 3/14(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대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3/21(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테레사 951-4710 3/11(화)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이상철 크리스토퍼 818-6903 3/8(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박정희 마리아 800-3709 3/10(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조소영 수산나 804-7645 3/9(주일) 오후 5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재훈 필립보 213-700-6983 3/8(토)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찬아 482-9108	배진영 프란치스코 482-9108 3/15(토)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판영 레오 818-1799 3/14(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메스 617-3568	이은미 가브리엘라 617-3588 3/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진정한 통공(通功)

아는 이가 기다리던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새 생명이 탄생하면 주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며 집중하게 된다. 웃음 하나, 웅얼이 하나도 신기해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며 이야깃거리로 삼기도 한다. 마땅히 축복받을 일이다.

그런데, 생명 하나가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곧 죽음이라는 이름의 과정일 것이다. 하늘나라에서도 이 땅의 우리처럼 새 생명 하나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조심스러워하거나 기뻐하고 집중할까? 그럴 것 같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으로는 지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므로, 이는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믿어야 할 진리이다. 하지만 신앙인인 우리들조차 알게 모르게 내세의 삶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싶어한다. 더구나 어떤 이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믿음이 미신이나 기복신앙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늘나라로 떠나시는 분들은 모두 늘 큰 가르침을 주고 가신다. 개인적인 사연을 통하여서뿐 아니라, 단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시는 그 공통적인 모습만으로도 그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에 대한 애착이 무의미함을,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없이, 온통 존재 자체로 웅변하시는 듯하였다.

때로는 단지 손 한 번밖에 잡아드리지 못한 인연조차 오래오래 기억에 남기도 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공을 통하여 계속되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대부분 종교가 있거나, 적어도 긍정적인 의미의 종교적 감성을 지닌 분들이시다.

그래서 어쩌면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을 좀 더 진실 되게 하고 좀 더 인간다움을 되찾게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또 다른 세상에서 생명의 탄생을 기쁘게 기다린다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호스피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늘나라 탄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이 일에 동참하는 이들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형제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정화할 줄 아는 이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온다면, 새로운 생

명의 탄생을 기다릴 하늘나라 백성들과 땅 위의 우리 사이에 진정한 통공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김숙남 리베라파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왜 사순시기를 제의 수요일로 시작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기념하는 파스카 축일을 준비하는 사순시기는 '40일'의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세기초에 이르러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40일 간 온전히 재를 지키기를 원하여 이미 지켜 오던 36일에다 4일을 첨가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순시기의 시작이 주일에서 수요일로 바뀌어 오늘날처럼 제의 수요일이 사순시기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의 강복과 재를 엮는 예식은 참회 예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신자입니다. 개신교에선 제사를 우상숭배로 금지하는데 천주교에서 아닌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 우스갯소리로 조상 제사 때문에 떠느리는 개신교를 좋아하고 시어머니는 천주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국 천주교 역사를 보면 조선 말기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 왔을 때 천주교도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조상 제사를 우상 숭배로 여겨 금지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조상 제사를 중시하는 유교 사회였기에 조상 제사를 거부한 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교회는 조상 제사를 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 공경으로 받아들여 허락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배제한 교회가 권장하는 방식의 조상 제사를 지내기를 가르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와 달리 천주교가 조상 제사를 허락할 수 있는 이유는 보다 근본적인 교리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인들의 통공입니다. 성인들의 통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지상 교회는 이미 죽음을 맞이한 신앙의 선조들인 성인 성녀들과 다른 죽은 영혼들, 즉 천상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죽은 이들에게 기도도 청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죽은 이들과 신앙 안에 통교할 수 있다고 믿는 천주교 신자들은 조상 제사를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좋은 미풍양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들의 통공을 믿지 않고, 장례식에서도 죽은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개신교 신자들은 조상 제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완전한 제사는 바로 미사이기 때문에 교회는 조상 제사보다 미사를 통해 죽은 이들을 기억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순호 신부 / 부산교구 주례성당주임